

『論語』의 치유적 독법 시론

—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를 중심으로

김승룡*

-
1. 經學은 지금 왜 하는가
 2. 經書와 治癒的 讀法
 3.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에 대한 試讀
 - 3-1. 集釋
 - 3-2. 辨字
 4. 공자의 마음을 읽다: 서운함조차 허용할 수 없었던 여림
 5. 맺음말을 대신하여
-

■ 국문요약

이 논문은 경서 속의 언술을 치유적으로 읽어낼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술 속의 감정을 읽고, 그 이면에 놓인 상처와 치유의 방식을 추적하여, 저자의 인간적 면모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치유적 독법으로 부른다. 이를 위해 『논어』의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구절을 살펴본다. 그 방법으로 集釋과 辨字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慍’이 가진 의미를 살펴볼 수 있었다. ‘慍’은 화를 내다는 뜻이 아니었다. 불만스러움은 있어도 겉으로 표현해 내지 못한 채 안으로 담아 두는 것이었다. 공자는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서운해 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는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더욱 완성도가 높은 인간으로서 성숙해 나갔을 것이다. 『논어』는 바로 그런 자기치유의 과정을 보여

*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E-mail: laohu99@hanmail.net

주는 텍스트였다.

주제어 : 논어, 공자, 경학, 치유적 독법, 인간적 성숙

1. 經學은 지금 왜 하는가

이 글은 논어 전체를 읽어내는 독법을 추구하지 않는다. 어쩌면 특정한 구절에 한정된 논의에 그칠지도 모른다. 이처럼 많은 괄호를 쳐야 하는 미진한 논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간혹 경서를 읽으면서, 경서 속의 글자를 대하는 우리가 너무 무겁고 진지한 것은 아닌가 하는 회의를 하곤 했다. 특히 경서는 이른바 성인의 언술이고, 언술 자체를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석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으며, 주석을 활용하되 주석이 가진 철학적 맥락과 기저를 받아들이는 순간, 어느새 주석이 지닌 철학적 프레임 안에서 遊泳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많았다. 경서를 공부하는 동안, 경서를 자기방식으로 소화하기 이전에 경전의 주석을 자기의 것인양 받아들이게 되고, 나아가 주석의 입장에서 경서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세상을 그렇게 이해하게 되었던 경우도 많지 않았던가 반성하게 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강한 주석에 의존할 경우는 더욱 그러한 경향이 짙었다고 생각한다.

경학은 인간학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인간을 이해하는 통로로서 경서가 존재하는 것이며, 인간의 어떤 지적 혹은 정서적 측면이 보편성을 띤 텍스트로 顯現되어 나온 것으로 이해한다. 거칠게 대별하자면 정서적 측면이 詩로, 서사적 측면이 書로, 원리적 측면이 易으로, 感而動하는 측면이 樂으로 나온 것이리라. 그래서 필자는 인간으로서의 경학자를 염두에 두며, 그의 인간학적 이해가 반추되어 나온 것이 경학담론이요, 그

해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나아가 경학자들의 해석을 바탕으로 하되 경서의 주인공(대개는 경전의 언술자들)을 다시 「인간」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과 감정을 읽어보려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의도와 다르게 경서 속에 吐納되는 기운을 읽지 못한 채 독서가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천천히 음미하기 이전에 의미를 해석해 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그렇게 만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어쩌면 거대한 경학구조를 염두에 두었던 것이 그 원인일 수도 있으리라. 해서 필자는 이 글에서 아주 미세한 지점을 시야에 두고 접근하고자 했다.

물론 그간 경서를 공부해 왔던 學人들은 다들 그렇게 해왔을 것이다. 이는 순전히 필자의 경험에 기인하는 각성일 뿐이다. 여하간 경서를 읽으면서 그 말을 해냈던 지식인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나보다 앞서 제출된 前輩들의 논의에 기대고 그것을 프레임으로 삼은 뒤, 그 프레임 안으로 그(經說의 주인)를 바라보고 있었음에 자성한다. 그래서 약간 우회적이지만, 그리고 뜬금없지만 치유적 독법을 소환하고자 한다.

2. 經書와 治癒的 讀法

누군가가 세상에 대하여 경전적 권위를 가질 수 있는 말을 하고 글을 쓰며, 훗날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경전화는 훗날 확정되는 것이지, 당시의 언명들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공적이거나 사적인 대화들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가끔 이를 망각하곤 한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經은 자기내면을 응시하는 작업을 동반한다. 사실 經이 활용되는 측면은 다양할 수 있다. 각각의 국면에 따라서, 각각의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된다. 經을 일상의 摘要를 위해 일기

로 적는 경우도 있고, 선전을 위해 써 붙이는 경우도 있으며, 입신을 위해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교류를 위한 사교의 수단으로 과시하는 경우도 있다. 나의 관점은 이런 경우들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들을 모두 아우르는 범위까진 미치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비좁은 논의에 그치거나 아주 평범한 언급에 그칠 위험도 있다.

그런데 이처럼 의도를 갖고 지어진 經說들조차 當者が 자신의 내면에 卽하여 지어진 것들이요, 주요하거나 그렇지 않은 언급들은 그 농도나 강도에 있어서 질적 수준이 다를 뿐일 것으로 생각한다. 즉 필자는 '내면'에 주목하고자 한다. 하다못해 무미건조해 보이는 경언들조차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한다.

옛분들은 不平한 상황에서 鳴言한다고 했다. 필자는 이 부분에도 눈을 두고 있다. 마음이 평정을 이루지 못한 순간이 '不平'이라면, 이를 '상처'라고 부를 수 있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상처도 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여 마음이 상하는 것도 있고, 스스로 자책이 깊어 내상을 입은 경우도 있으리라. 여하간 이런 불편하고 부족하고 불리하고 불만스러운 상황을 '불평'이든 '상처'든 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이런 상처를 다시 平靜의 상태로 되돌릴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흔히 '내적 自整'이라고 불리는데, 이 내적 자정을 이루는 순간을 '내적 치유'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필자는 바로 이 부분을 제시한다. 그 내적 자정으로 이르는 과정은 상처를 포용하여 회색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채 육신마저 병든 채 끝내 자멸하거나 自棄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우리는 經說을 읽으면서, 경언의 주인공이 겉으로 드러나거나 잠복되어 있는 상처를 自整해 나가는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그 단서는 결국

겉으로 드러난 감정의 결이다. 감정은 논리를 감싸고 있거나 아니면 논리 속에 들어있기도 하다. 이 탐색의 과정에서 우리는 그 이면(경언의 속살)에 놓인 상처와 그것을 치유해가는 그만의 독자적 방정식을 볼 수 있고, 나아가 경언의 주인공이 상처를 해소하거나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끝나는 결말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필자는 이 추적과정이 경서를 독해하는 과정이며, 나아가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의 삶을 반추할 기회를 확보하고,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안내하는 지침을 얻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독법을 잠정적으로나마 '치유적 독법'으로 부른다. 주석에 의거한 경언의 학문적 이해와 그것의 경학사적 의미를 묻는 논의와는 약간 거리가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경서를 둘러싸고 켜켜이 쌓여있는 해석들, 이미 先取되어 내 안에 地層化된 前見을 넘어서야 한다. 이 지점에서 集釋學이 요구된다. 또한 字學(辨字)의 도움도 받아야 한다. 전자가 하나의 문장에 대한 해석의 평등성을 확보하는 일임에 비해, 후자는 글자 하나하나에 積澱된 문화적 층차를 읽는 일이고, 字의 原義(시대적으로)를 추적해 내는 과정이다. 이 순간 우리는 원전에 들어있는 감정을 찬찬히 접근하고 원전의 결을 최대한 존중하며, '전견에 묻든 나'의 개입을 적절하게 자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결국 '나의 눈과 머리'로 읽어내고 있으니, 끝내 나의 개입을 피할 수 없는 일이런가. 해석학이 피해나갈 수 없는 도그마적인 운명이 아닐런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치유적 독법으로 읽는다는 것은 어떤 효능이 있을까. 무엇보다 내면을 응시하고 읽어낼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상처(좌절)로 요약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능동적 내적 대응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순자의 能參을 적극 옹호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맹자』를 펼치자마자 등장하는 양혜왕은, 맹자의 仁義로운 정치

학을 위한 희생양으로 등장할 뿐이지만, 그의 치세에 수없이 축소되고 쇠약해지는 국력에 대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라는 것과 맹자를 불러서 국가의 이익을 우선 말할 수밖에 없는 처지와 절박함을 이해해 줄 수는 없는 것일까? 한때 패주를 자처하던 인물이 천리 밖에서 온 지식인에게 무참히 자신의 논리가 무너지는 상황들을 너그러이 봐줄 수는 없는 것일까? 필자는 양혜왕이 안쓰럽고 이해되기도 한다. 여하간, 우리는 이 독법을 통해 경언의 주인을 하나의 인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아울러 고전 속 인간 이해를 넘어, 현대 學人들도 자신의 삶과 감정과 내면을 응시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가능성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3.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에 대한 試讀

익히 알려진 『논어』의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라는 구절을 읽기 위하여 두 가지 방향, 즉 집석과 변자를 고민해 보도록 하자. 집석은 시대순으로 주해를 늘어놓으면서 경문의 해석들을 평등하게 살펴보는 것이다. 기존 주해 사이의 우열을 논하지 않는 가운데, 주해자들 사이의 의견 가운데 특이한 점을 포착하고 그것의 장점을 살려서 읽는 것, 이것이 집석의 장점이다. 우선 집석을 살펴보도록 한다.

3-1. 집석

㉠ 魏 何晏: 慍, 怒也. 凡人有所不知, 君子不怒. (論語注疏)

㉡ 梁 皇侃: 人謂凡人也. 慍, 怒也. 君子有德之稱也. 此有二釋, 一言古之學者爲己, 已得先王之道, 含章內映, 而他人不見知而我不怒, 此是君

子之德也。有德已爲所可貴，又不怒人之不知，故曰亦也。又一通云，君子易事，不求備於一人。故爲教誨之道，若人有鈍根不能知解者，君子恕之而不愠怒之也。爲君子者，亦然也。(論語集解義疏)

㊤ 宋 朱熹：愠，含怒意。君子，成德之名。尹氏曰，學在已知，不知在人，何愠之有。(論語集註) ○人不知而不愠，自是不相干涉。己爲學之初，便是不要人知，至此而後真能不要人知爾。若煅煉未能得十分成熟，心固有時被其所動，及到此方真能人不我知而不愠也。又曰，不愠不是大怒，心中略有不平之意，便是愠。此非得之深，養之厚者，不能如此。(朱子語類)

㊥ 宋 許謙：愠只是悶，猶言不樂。如南風詩中愠字只是熱之悶人。(讀論語叢說)

㊦ 明 王衡：羅近溪謂，愈學而愈悅，如何有厭。愈教而愈樂，如何有倦。故不愠人之不己知者，正以其不厭不倦處。(論語駁異)

㊧ 清 焦循：注言人有所不知，則是人自不知，非不知己也。有所不知，則亦有所知。我所知而人不知，因而愠之，矜也。人所知而我不知，又因而愠之，忌也。君子不矜則不忌，可知其心休休，¹⁾ 所以爲君子也。(論語補疏)

㊨ 清 阮元：人不知者，世之天子諸侯皆不知孔子而道不行也。不愠者，不患無位也。學在孔子，位在天命。天命既無位，則世人必不知矣。此何愠之有乎。(研經室集)

㊩ 楊伯峻：人家不了解我，我却不怨恨，不也是君子嗎。(論語譯注)

위 논의 가운데 밑줄 친 부분을 주의해서 읽어보면 이렇다. 앞선 주해

1) 『書』「秦誓」：“其心休休焉，其如有容。”孫星衍이 『尚書今古文注疏』에서 인용한 鄭康成의 주석에는 “休休，寬容也.”라고 했고, 孫星衍은 “鄭注見大學釋文。以休休爲寬容貌者，何氏注公羊云，‘休休，美大貌。’大即寬容之義.”라고 했다.

자들은 대개 ‘慍’을 ‘怒’의 맥락에서 해석하고 있다. 하안, 황간 등이 그러하다. 그런데 주희에 오면 ‘含怒意’라고 하여怒가 밖으로 나오지 않은 채, 안으로 머금어져 있음으로 해석되었다. 특히 『주자어류』에서 더욱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바, 주희는 마음 속에 대략 지니고 있는 불평스러운 기분 혹은 감정으로 해석했다.(心中略有不平之意, 便是慍)

이후로 허겸은 번민으로 해석하고, 초순도 너그럽거나 관대하지 않은 마음으로 해석했다. 약간 표현의 차이는 있어도, 慍을 두고 화를 (밖으로) 내다는 것과는 결을 달리하여 해석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근대의 양백준은 원망하다는 의미로 풀어서 慍이 지닌 내향성을 놓친 듯한 느낌이다. 해석들이 시대를 지나면서 정돈되어 하나의 의미로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너울대듯 요동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집석의 묘미는 이러하다. 이런 의미의 평등한 변주 속에서 우리는 글자의 외연과 내포를 찾아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번자를 통해서 ‘慍’의 의미를 더 추적해 보도록 하자.

3-2. 辨字: 慍, 怒, 怨

‘慍’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선상에서 이야기될 수 있는 한자로 「怒」와 「怨」을 거론하고자 한다. 이들은 서로 혼용되기도 하고, 구분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는 이를 『古辭辨』에 나오는 용례를 중심으로 의미의 차이를 해명해 보도록 한다. 『고사변』은 일종의 동의어를 모아서 先秦의 용례에 의거하여 의미를 구분하고 있는 책이다. 『논어』가 이 즈음에 생산된 것을 생각하면, 이 책의 용례는 『논어』 속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 유용한 암시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에 전적으로 의지해선 곤란할 것이다. 사전이 지닌 한계를 고스란히 받아안아야 하겠기 때문이

다. 허나 지금 辨字의 통로로선 유용하기에 이 글에서는 활용하도록 한다. 이에 의거하면 다음과 같이 그 의미들을 구분할 수 있다. 우리의 주요한 목표는 ‘慍’의 의미이다. ‘慍’은 기운이 돌치는 것이다. 그러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현대어로 심리적으로 불만스럽거나 마음이 번뇌하다는 뜻이다. 『國語』 「楚語」에 “저 백성의 마음이 불만스러워하는 것은 마치 큰 강물을 막고 있는 것과 같다. 독이 무너지면 침범하는 것이 반드시 거대하리라(夫民心之慍也, 若防大川焉. 潰而所犯必大矣)”라고 했다. ‘民心之慍’은 백성의 마음이 불만스러워하는 것이다.

이른바 從暵字인 蘊, 醜 등은 모두 안으로 품다, 갈무리하다는 뜻이다. 특히 慍은 隱습한 분노이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데 그것을 인내하며 發出하지는 않는 것이다. 혹여 드러나더라도 고작 뺨이 울그락불그락할 뿐이요 손짓이나 말로 드러내지는 않는다. 사마천의 『報任少卿書』에 “시작한 일을 아직 이루기도 전에 때마침 이런 화란을 만나서 그 이루지 못함을 애석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극형에 처해짐에도 서운해하는 기색은 없었다(草創未就, 會遭此禍, 惜其不成, 是以就極刑而無慍色)”라고 했다. ‘無慍色’은 결코 불만스러워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怨氣가 隱藏되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논어』 「衛靈公」에 “자로가 서운해하면서 말하기를, 군자도 또한 궁색하게 되는군요?(子路慍見, 曰, 君子亦有窮乎)”라고 했는데, ‘慍見’은 불만이 말투에 배어나오는 것이다.

이에 비해 ‘怒’는 감정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 점은 ‘忿’과 같다. 『손자』 「謀攻」에 “장수가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개미처럼 성벽을 올랐다(將不勝其忿而蟻附之)”라고 했는데, 장수는 거센 분노를 안고서 병사들에게 성벽을 타고 올라가 공격하도록 했다는 뜻이다. 『사기』 「廉頗藺相如列傳」에 “인상여는 옥벽을 지니고 문득 섰다가 기둥에 기대었는데 성난 머리카락이 관을 찌를 정도였다(相如因持璧, 却立, 倚柱, 怒髮上衝

冠)”라고 하여, 머리카락이 모자를 일떠세웠으니 怒氣가 盛大하였음을 알 수 있다. 『회남자』 「天文」에 “화가 나서 부주산을 치받자 천주가 부러지고 지유가 끊어졌다(怒而觸不周之山, 天柱折, 地維絕)”라고 했으니, ‘怒’하여 산을 치받은 것이다. 그 격렬한 세기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忿’과 ‘怒’는 약간 차이도 있다. 忿은 화기가 아주 크게 일거나 감정이 요동치되 이성으로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것을 뜻한다. 『예기』 「대학」에 “몸이 성나면 그 올바름을 얻지 못한다(身有忿懣則不得其正)”라고 했다. 怒는 상대적으로 화기가 盛하거나 심정이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는 점만을 뜻한다. 그리하여 주로 怒는 벼락처럼 크게 내려치는 기세를 뜻하거나 매서운 형세를 표현한다. 이를테면 怒馬는 건장한 말을, 怒潮는 거세게 몰아치는 파도를 뜻하는 것 등이다.

한편, ‘恨’과 ‘憾’이 모두 자신에 대한 불만을 뜻하는 것이지만, 상대적으로 怨은 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만을 표하고 나무라는 것이다. 『순자』 「天論」에 “수시는 치세와 함께 하고 재앙은 치세와 달리 한다. 하늘을 원망할 수 없으니 그 도가 그러한 것이다(受時與治世同, 而殃禍與治世異, 不可以怨天, 其道然也)”라 했고, 『사기』 「屈原列傳」에 “국풍은 미색을 좋아하나 거기에 빠지지 않으며, 소아는 원망하고 비방하되 어지럽히지 않는다(國風好色而不淫, 小雅怨誹而不亂)”라고 했다. 怨은 모두 埋怨(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불만을 토로하는 것), 抱怨(타하는 마음을 안고 있는 것), 責難(힐난하며 나무라는 것)의 뜻이다. 怨은 경미한 원망은 물론이요, 일반적으로는 원수처럼 원한을 맺는 것(仇恨)까지 뜻한다. 『맹자』 「양혜왕상」의 “군대를 일으켜 신하를 위태롭게 하여 제후들과 원한을 맺는다(興甲兵, 危士臣, 構怨於諸侯)”, 『사기』 「趙世家」의 “원한의 근거가 되지 말고 재앙의 계단이 되지 말라(毋爲怨府, 毋爲禍階)”가 그것이다. 怨은 원한을 맺는 것으로 많이 쓰였던 것이다. 정리

하자면 怨은 원수 보듯 원망하는 것이요, 恨은 서운해하는 遺憾으로서, 그 뜻을 대략적으로 나눌 수 있다.

4. 공자의 마음을 읽다: 서운함조차 허용할 수 없었던 여림

그럼 위의 집석과 변자에 기대어 공자의 不慍을 이해해 보도록 하자. 그 안에 들어있는 공자의 마음은 무엇일까? 우선 치유적 독법이 經書 속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에 일차적인 목표가 있음을 떠올리면서 읽어가도록 한다.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논어』 「學而」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 하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공자의 말이다. 사람들은 나 아닌 존재에 대하여 그리 인정하길 좋아하지 않는다. 특히 식자연하는 사람들은 더욱 그러하다. 오죽했으면 曹 丕는 ‘文人相輕’이라고 했을까? 글을 아는 사람들은 서로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다. 공자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았다. 자신의 조국인 노나라에서도 그러했다. 결국 노나라의 귀족들의 견제로 인해 나라를 떠나서 떠돌게 되었다. 무려 최측근 제자들 70여 명을 거느린 채 열국을 다니면서 자신의 사상과 학술을 알리고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의 노력은 그다지 성과를 보지 못했다. 아무도 그의 생각을 자신의 정치에 활용하려고 하지 않았다.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사랑을 말했지만, 군주들은 병법의 운용을 통해 자신의 나라가 강성해지기를 원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 공자는 허탈했고 좌

절했다. 간혹 군주들은 자신의 제자를 등용하려고 했다. 그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공자의 마음은 편안하지 않았으리라. 이때 공자가 취한 마음의 전략은 ‘不懼’이었다. 「성내지 않는 것」, 이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우리는 흔히 이 구절을 ‘君子’를 위한 정신적 전제로 읽곤 한다. ‘군자’는 공자가 꿈꾸었던 이상적 지식인이요,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지식인의 모델이었다. 지식인은 전문적인 식견과 지식을 갖추고 세상의 변화와 문제에 적극적으로 응변하는 사람으로서, 군자가 될 수도 있고 소인이 될 수도 있었다. 이 가운데 군자적 지식인이 되기 위한 전제로 ‘人不知而不懼’을 제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것을 ‘人不知’의 상황에 대한 공자의 마음치유로 이해하고자 한다. 지식인에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비전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음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다. 간혹 모욕을 느낄 정도로 자존감은 추락하기도 한다. 본래 지식인은 현실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법, 그래서 혹자는 지식인의 얼굴을 창백하다고 하지 않았던가. 공자는 그런 아픈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했다. 누구나 ‘怒’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니 밖으로 성내는 커녕 안으로 성난 마음도 품지 않았다. 그것이 ‘不懼’이다. 이 마음의 전략은 「학이」의 말미에 재차 반복된다.

不患人之不知，患不知人也。『논어』 「학이」

(다른 사람이 나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아파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을 알려주지 못하는 것을 아파하라)

내가 다른 사람을 알려주지 않음을 걱정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려주지 않음에 대하여 굳이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했

다. 患은 외재의 사물로 인하여 내가 걱정하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이 患은 반드시 빈어를 필요로 한다. 상대적으로 憂는 속마음의 정서상태를 뜻하기에 굳이 빈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²⁾ 나의 밖의 것으로 인해 빚어진 마음의 걱정, 그런데 그것이 병증을 이루게 되었다.

君子病無能焉 不患人之不己知也 『논어』 「위령공」

(군자는 무능함을 고질로 여길 것이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아파하지 마라)

공자는 患을 病과 같은 반열에 놓고 언급하고 있다. 病은 침상에 누워 있는 상태로서 만성적인 병증을 뜻하는 바, 특히 기아나 피로 등의 누적으로 인하여 견디기 어렵고, 너무 쇠약해져 기력이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와 같이 쓰이는 疾은 통증이 더욱 심한 것으로 外傷의 성격이 강하다. 즉 심리적으로, 병은 우려하고 걱정하며 고뇌하며 그것이 고질화된 것을 뜻한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밖으로 드러내지 못한 채 안으로 서운한 마음을 담고있는 慍, 그리고 무언가 나의 밖에서 자극해오는 것들에 대하여 부담과 걱정을 품는 患, 그리고 이제 그것이 누적되고 고질이 되어서 더욱 견뎌내기 어려워진 病, 이렇게 의미의 맥락을 추론해볼 수 있을 듯하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외부에 대한 마음쏠림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단순하지만 간단하다. 안으로 다독이는 것! 가벼운 불만조차 마음 한자락에 쌓아두지 말라! 不慍의 전략은 지극히 근원적인 셈이다.

공자는 ‘人不知’를 아파하는 것이 이미 병적 증세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던 것이다. ‘知’와 ‘不知’는 사람

2) 이를테면 『논어』 「子罕」의 “知者不惑, 仁者不憂, 勇者不懼”가 그러하다.

에게 병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심각하고 치명적인 상황이다. 그는 심플하지만 단호한 처방전을 내렸던 것이다. 患이나 病으로 되기 이전에 서운한 마음조차 마음에 허용하지 말 것이요, 나아가 그토록 여리고 소심하게, 그리고 예민하게 지내거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군자(다운 지식인)가 되리라! 공자의 마음이다. 생각해 보면, 지금도 그러하다. 자신을 무시한다 하여 저질러지는 범죄를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전 속의 마음들은 지금-이곳 사람의 마음을 위무하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며, 동조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할 수 있다.

5. 맺음말을 대신하여

고전은 그것이 지금의 현실에도 適合할 때, 適用될 때, 適中할 때 허공을 떠도는 귀신의 처지를 벗어던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곧 幽界에서 明界로, 전설에서 현실로 돌아올 수 있다. 옛것이고 이름난 저자의 집필이라는 이유로, 혹은 여전히 찬양되고 있다는 이유로 「지금의 고전」으로 불릴 수는 없다. 고전의 평가는 역사적으로 상대적이었다. 고전목록이 끊임없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시 작성되고 읽히고 있는 것을 보면 그러하다. 이 고전으로부터 치유의 자산을 추출하는 것은 뜻하지 않게 불편하고 아픈 상황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댈 곳은 예전의 경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 경험의 축적이 고스란히 남겨지고 積澱된 결과가 바로 고전이다. 그래서 고전은 상대적이다. 오랫동안 고전의 위치에 있었던 텍스트들은 그만큼 長久하고 지속적인 해결아

이디어를 제공해왔다.

목자는 聖人이란 천하의 난리를 다스리는 것을 일삼는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병을 고치는 의사와 같다고 말했다. 그래서 의사처럼 천하가 어지러워진 원인을 찾아내서 치료해야 한다고 했다. 그것이 도덕적이든 실용적이든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문화적이든 그에 대하여 제한을 두진 않았다. 필자는 이를 원용하여 이렇게 말하고 싶다. 古典이란 세상 사람들이 부딪힌 상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텍스트로서, 비유하자면 사람의 병증을 치유하는 처방과 같다. 그래서 고전으로부터 지금의 상처를 치유하거나 위로를 구할 자료를 끌어내는 것은 지금 허 온당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논어』를 두고 치유적 독법을 운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대적 효능에 대한 첨언 하나는 덧붙인다. 우리는 가끔 경전의 연구와 경학을 하는 학인의 삶 자체가 불일치하거나 간극이 있음을 확인하곤 한다. 논문은 친자연적인데 삶은 친문명적인 경우들, 글은 친여성적인데 삶은 駭여성인 경우들, 글은 호탕한데 삶은 치졸한 경우들, 학술적으로 진보를 말하면서 삶은 보수적인 경우들, 글은 동아시아를 이야기하되 삶은 민족 우선의 가리마에 덧씌워진 경우들이 그러하다. 필자 역시 그러한 엇갈린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다. 필자가 성찰하기에, 이는 경서를 읽되 경언의 주인과 경언을 별개로 이해한 결과가 아닐까 한다. 즉 치유적 독법은 경서를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차후 지금 학인으로서의 삶과 글이 일치되도록 요구하는 현대적 효능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 부분은 다소 섬세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³⁾

3) 제4장과 제5장의 논의는 필자의 「고전 속 아픔과 나의 아픔-고전과 치유의 접속」(『시민의 인성』 2, 당신의 서재, 2019)에 근거하여 집필되었다. 필자는 이 글에서 고전을 통한 마음 치유를 도모하기 위하여 『논어』 『목자』 『장자』 등에서 치유의 자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조목을 추려내고 해석을 가한 뒤, 이를 고전치유학으로 명명

〈참고문헌〉

『論語』

何晏, 『論語注疏』

皇侃, 『論語集解義疏』

朱熹, 『論語集註』

朱熹, 『朱子語類』

許謙, 『讀論語叢說』

王衡, 『論語駁異』

焦循, 『論語補疏』

阮元, 『研經室集』

楊伯峻, 『論語譯注』

王鳳陽, 『古辭辨』, 길림문사출판사, 1993.

김종기 외, 『시민의 인성』2, 당신의 서재, 2019.

한 바 있다. 사실 경학을 비롯한 고전학을 통하여 치유적 독법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이 가운데 분고는 『논어』의 치유적 독법이 가능하였는지를 경학의 연구 방법론(주로 訓詁)을 통해 검증하고 학문적으로 안받침하기 위하여 집필된 것이다. 차후 심사위원들의 의견처럼, 논리적 설득력을 강화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논지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Therapeutic reading poetry of 『論語』:
Focusing on “人不知而不愠 不亦君子乎”

Kim, Seung Ryo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ad the expressions in the classics in a therapeutic way. By reading the emotions in the speech and tracing the wounds and healing methods behind them, we seek to confirm the author's human side. This is called therapeutic reading. For this purpose, let's look at the phrase “人不知而不愠, 不亦君子乎” in the Analects of Confucius. In that way, 集釋 and 辨字 were used. As a result, we were able to examine the meaning of '愠'. '愠' did not mean to be angry. Although there was dissatisfaction, it was kept inside rather than expressed outwardly. Confucius was a person who did not feel disappointed even if others did not acknowledge him. He would have matured into a more complete human being through the process of self-healing. The Analects of Confucius was a text that showed the process of self-healing.

Key Words

Analects of Confucius, Confucius, Classical Classics, therapeutic reading, human maturity

논문접수일: 2023. 12. 12, 심사완료일: 2023. 12. 25, 게재확정일: 2023. 12. 31.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 Classical Literature in Chinese characters,
Pusan National University / E-mail: laohu99@hanmail.net

